

데이트 관계에서 헌신의 역할

The Role of Commitment in Dating Relationships : Does It Make a Difference?

동의대학교 생활과학대학 가정관리학과
조교수 윤경자

Department of Home Management, Dong-Eui University
Assistant Prof. : Gyung Ja Yoon

〈목 차〉

- | | |
|--------------|-------------|
| I. 서론 및 문제제기 | IV. 결과 및 해석 |
| II. 이론적 배경 | V. 결론 및 제언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The present study examines the role of commitment in dating relationships. Using 354 university students, the data show that commitment is positively related to premarital sexual behavior, especially for highly experienced females. The development of dating relations is significantly related to the level of commitment for both males and females and the differences between groups are more obvious for female students. Commitment increases as duration of dating relations increases. While females generally show higher commitment at more advanced dating relationships than males, males indicate higher commitment at beginning stages than females. The implications of these findings are discussed.

I. 서론 및 문제제기

사회적인 거시적 연구관점에서 30여년전 헌신이 주목을 받은 이래(Becker, 1960) 헌신의 개념이 인간 관계 및 가족관계에서 지닌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가족연구에서 헌신을 적용한 연구는 많지 않았다. 이

제까지 헌신은 사회학적 영역에서 사회제도와 관련된 회원신분의 유지나 직업만족도 등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 주로 연구되었는데, 가족연구에서는 결혼관계나 동거에서 관계의 안정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다루어지기도 하였고(Bennett, Blanc, & Bloom, 1988; Levinger, 1965, 1976; Nock, 1995; Thomson

and Colella, 1992) 사회교환이론과 공평성이론의 관점에서 헌신이 종속변수로 연구되기도 하였지만 (Kelley, 1983; Kurdek, 1995; Leik and Leik, 1972; Michaels, Acock, Edwards, 1986; Rusbult, Johnson, & Morrow, 1986), 결혼관계와 더불어 친밀한 인간관계의 하나인 혼전 데이트관계에서 헌신의 중요성을 다룬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헌신이 결혼안정성, 즉 결혼의 지속성과 관련되어 있다면 또다른 친밀한 관계인 데이트관계에서도 헌신이 같은 역할을 할 것인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다.

오늘날 혼전 데이트는 결혼하기 전의 규범적 단계로 거의 자리잡아 가고 있다. 데이트는 발달과정상의 한단계로 결혼을 위한 목적으로 뿐만 아니라 사랑의 본질을 터득하며 이성에 대한 흥미를 충족시키고 인간관계에서 알아야 할 기본적 기술을 습득하는 등의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결혼과 관련해서는 완전한 중매혼을 통해 결혼하는 소수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배우자선택을 위한 기간을 거치게 된다. 결혼전에 보유하고 있던 사회적, 인적, 그리고 정서적 자원이나 조건들은 결혼적응과 결혼의 질(quality), 그리고 결혼안정성에 밀접히 관련되어 있고(Spanier, 1979), 혼전 데이트관계는 가장 흥미가 있고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 단계(Udry, 1971)임을 감안할 때 데이트관계의 중요성은 간과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변인들을 규명하는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와 같이 데이트관계가 데이트자체로서의 의의뿐만 아니라 결혼생활에 미치는 영향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수행되어온 연구의 주된 관심은 결혼관, 즉 결혼의 동기 와 목적, 배우자선택의 기준 및 방법, 그리고 이성교제의 시작연령과 문제점 등에 한정되어 왔으므로 데이트관계의 상호작용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변인들을 규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더구나 혼전 성행동의 전제조건이 결혼이나 약혼을 전제로 한 개인적 헌신을 기초로 하기 보다는 사랑하는 사이에서는 결혼과 상관없이 혼전 성관계가 허용된다는 것과 같은 개방적 성태도로 바뀌고 있다(윤경자, 1995; Reiss, 1979). 그렇다면 오늘날 헌신은 혼전 성행동의 발생과정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가.

이와 같이 데이트에 관련된 연구범위를 확대해야

하는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결혼에 관한 연구와 비교하여 극히 제한된 관심만을 받아온 것은 데이트관계의 성립 및 해체가 결혼관계의 같은 작용에 비하여 그 과정이 상대적으로 작다고 인식되어 왔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친밀한 관계의 해체는 인생에서 경험하는 사건 중 가장 스트레스가 높은 편이라는 연구결과(Holmes & Rahe, 1967; Harris & Cole, 최신태 역, 1986에서 재인용)가 시사하는 바와 같이, 최근 이혼이나 서로 사귀고 있던 이성의 파트너와 헤어지는 등의 관계해체를 경험할 때 극단적으로 행동함으로써 사회문제가 되는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예는 헌신(commitment)의 구성개념 중 다른 한편인 봉헌(dedication)과 책임감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데이트관계에서 헌신의 적용의 폭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헌신과 데이트관계의 친밀성 및 지속성과의 관계와 역할을 파악하며 데이트관계의 발전에 따라 각 단계에서 헌신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특히 이 연구를 통해 규명되어지는 헌신의 역할은 데이트관계의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자료를 제공할 것이며 이 결과들은 청소년 성교육 프로그램과 혼전생활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에 방향을 제시할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헌신의 정의

헌신을 개념화시키는 연구가 진행될수록 여러 연구에서 헌신이 다양하게 정의되어 왔는데 본 연구자는 그 내용에 따라 종합적으로 두가지 측면으로 분류하였다. 하나는 행동적 혹은 조건적 헌신으로 명명하였는데 한 개인은 자신이 선택한 행동과 자신이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다르더라도 일관되게 행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행동적 헌신은 관여하고 있는 어떤 관계에서 그 관계가 가져다 주는 보상과 한 개인이 추구하는 것이 유사한 경우이거나 그 관계가 더 많은 보상을 가져다 줄수록 헌신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한다. 헌신을 한 개인이 관계에

관심을 보이는 것에서 관계유지쪽으로 목표가 바뀌는 것을 중재하는 정도(Leik and Leik, 1972)이며 관계와 일련의 행동을 유지하려는 욕구와 의도(Michaels et al, 1986; Johnson, 1982)라고 정의하는 것은 이러한 관점에서 본 것이다. Johnson(1982)은 이러한 헌신은 그 관계로부터 얻는 만족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보았다.

다른 형태의 헌신은 완전한 헌신으로 명명하였는데 이것은 한 개인이 선택한 결정을 실행할 때 그 행동의 결과가 현재나 가까운 장래에 보상을 가져오지 않더라도 선택한 결정에 우선권을 두는 것을 말한다. 이 관점은 어떤 행동의 결정으로 말미암은 기회비용까지도 감수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완전한 헌신은 아무런 대안을 고려하지 않는 상태라고 말할 수 있다. Kelley(1983)는 헌신을 보상이 줄어들거나 비용이 늘어나더라도 계속하여 파트너를 이롭게 하려는 의도라고 정의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헌신은 가족구성원이나 가족전체의 복지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될 때 자신에게 보상이 돌아오지 않더라도 기꺼이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관계, 즉 가족관계 같은 높은 수준의 헌신을 필요로 하는 관계에서 제한적으로 찾아볼 수 있다. 결혼전의 데이트관계에서는 일반적으로 한 개인이 현재 관여하는 관계가 그 개인에게 보상을 가져다주는 범위내에서 지속되는 경우가 많으며 그 관계가 보상보다 더 많은 비용을 초래한다면 관계해체로 이어진다. 그러나 결혼관계나 자녀가 있는 가족관계에서는 비록 그 관계가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쉽게 관계해체로 이어지기 어려우며(Jeong, 1991) 헌신의 수준이 데이트관계의 파트너들 보다는 훨씬 높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고 이것은 경험적 연구의 결과로도 뒷받침되고 있다(Stanley and Markman, 1992).

헌신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는 행동적 헌신의 개념에 바탕을 두고 있다. 헌신을 관계 등에 대한 개인적 봉헌(dedication)과 행동을 일관되게 지속하려는 의무감이나 구속감이라는 본 Lund(1985)와 Stanley and Markman(1992)의 정의는 앞에서 논의된 두가지 구성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데이트 관계에서의 헌신을 정의하는데 있어서 완전한 헌신

의 개념은 데이트관계에 적용하기에는 이상적일 뿐 아니라 다소 현실적 상황과 거리가 있다고 판단되어 행동적 혹은 조건적 헌신의 개념을 적용하였다.

헌신(commitment)을 우리말로 번역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헌신의 개념이 그 동안 국내의 선행연구에서 거의 적용되지 않아서 그 예를 찾기 어려웠고 최근에 와서야 이에 대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것으로는 두편의 연구(노은주, 유영주, 1992; 송정아, 1996)에서 각각 관계몰입과 헌신으로 번역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적용한 헌신의 정의가 관계의 지속성 및 구속감을 나타내고 있으며 관계몰입은 헌신의 결과로 일어나는 한 측면이라고 볼 수 있고 가족학과 관련영역에서 이 개념이 정의되어온 맥락에 비추어 볼 때 헌신으로 번역하는 것이 다른 용어에 비하여 그 의미를 더 뚜렷하게 전달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헌신이란 용어로써 이 개념을 사용하고자 한다.

2. 헌신의 남녀 차이

친밀한 관계에서 헌신에 관한 남녀차이는 성별에 관계없이 남녀 모두 헌신의 영향을 받고 있으나 여성이 남성에 비하여 더 높은 수준의 헌신을 보인다는 결과와 서로 차이가 없다는 결과로 상반되어 있다. 결혼한 94쌍의 젊은 부부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여성들은 남성들에 비해 배우자에 대한 헌신의 수준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Kimmons, 1980). 반면에 중류층 부부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헌신은 남편과 부인 모두에게 해당되었다(Neira, 1985). Cook과 Emerson(1978)은 권력이 불균형된 관계에서도 여성들이 남성들에 비하여 파트너에 대하여 높은 수준의 헌신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헌신은 관계의 지속성과 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한 개인적 봉헌(dedication)을 의미하므로 헌신이 높다는 것은 한 개인이 관여하고 있는 관계에 다양한 투자를 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Rusbult, 1980, 1983). 교환이론적 관점에서 헌신을 보상과 비용의 상호관계적 측면으로 볼 때 어떤 관계에 많은 투자를 한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그 관계가 실패할 경우 잃는 것도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많은 투자를 한 개인은 그 관계에 무무름으로써 더 많은 보상을 기대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남성에 비해 관계와 가족에 더 많은 투자를 하는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더 높은 헌신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높은 수준의 헌신을 나타내는 개인들은 파트너와 자신을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결과(Wyatt, 1983)도 자신을 파트너와 동일시할수록 그 관계가 해체될 경우 더 많은 것을 잃는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관계에 더 많은 투자를 하는 여성들의 경우에 남성들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헌신도를 보여 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 헌신과 혼전 성행동

헌신이 혼전 성행동에 주는 직접적 영향에 관한 선행연구는 매우 미흡한 편이다. Lewis와 Burr(1975)은 대학생들의 헌신수준과 혼전 성관계와의 관계를 조사하였지만 첫번째 데이트, 이따금씩 데이트, 안정된 데이트, 약혼 등과 같은 데이트 발달단계를 헌신 수준을 측정하는 도구로 사용하였으므로 헌신과 혼전 성행동간 관계를 조사하기 보다는 데이트발달과 헌신간 검증되지 않은 가정을 바탕으로 하여 혼전 성행동과의 관계를 나타내려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헌신과 혼전 성행동에 관한 이론적 정립을 위하여 헌신의 구성개념을 명확히 반영하여 헌신과 혼전 성행동간 관계를 측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 관계를 규명하여 데이트관계에 새로운 시각을 더하며 상담프로그램에 유용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4. 데이트관계의 발달에 따른 헌신의 차이

데이트관계집단, 동거하는 동성애집단, 그리고 결혼부부들을 대상으로 관계적 헌신의 수준을 조사한 연구(Kurdek, 1995)에서 데이트집단이 다른 집단들에 비하여 가장 낮은 헌신을 나타내었다. 관계가 더 가까울수록 헌신의 강도가 더 높아졌다는 것은 데이트관계에서도 부담없이 데이트하는 커플보다 약혼을

하였거나 결혼을 약속한 커플이 더 높은 헌신을 나타낼 것이라고 추론해 볼 수 있다. Lund(1985)는 데이트관계발달의 각 단계에 따라 대상자들을 부담없이 데이트하는 집단, 진지하게 데이트하는 집단, 배타적으로 파트너와 데이트하는 집단, 그리고 약혼한 집단 등 4단계로 분류하고 결혼한 부부와 함께 관계 발달에 따른 헌신의 차이를 조사하였는데 약혼한 집단과 결혼한 부부들의 단계를 제외하고는 각 단계에 따라 현저한 차이를 보였다. 부담없이 데이트하는 집단이 가장 낮은 헌신을 나타내었고 진지한 데이트집단에 비해 배타적 데이트집단은 큰 폭의 높은 헌신 수준을 나타내었으며 배타적 집단과 약혼집단간에도 급격한 차이를 보여 주었다. 그러나 약혼집단과 결혼집단사이에는 헌신의 차이가 거의 발견되지 않았다.

5. 연구문제

이상의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하여 데이트관계에서의 헌신의 역할에 관하여 알아보려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헌신의 수준에 따라 혼전 성행동은 달라지는가?

연구문제 2. 헌신은 데이트기간에 따라 차이가 나는가?

연구문제 3. 데이트관계의 발달에 따라 헌신은 차이가 나는가?

III.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데이트관계의 다양성을 알아 보는 일련의 연구과정의 일환으로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부산광역시와 대전광역시에 위치한 5개 대학교에 재학중인 남녀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총 552부의 질문지를 배부하였는데 515부가 회수되었고 그 중에서 응답을 하지 않는 등 부실한 자료를 제외한 497부 중에서 본 연구목적에 해당되는 354부를 분석에 이용

하였다. 본 연구를 위하여 1994년 11월에 예비조사와 본조사가 실시되었다. 회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본 연구의 목적과 의의를 설명하는 편지를 포함하였다.

조사대상자는 남자대학생이 186명(52.5%)이며 여자대학생은 162명(45.8%)이었다. 학년은 2학년 173명, 3학년 123명, 4학년 40명, 그리고 1학년 10명의 순이었으며 나이는 18세에서 28세에 걸쳐 분포되었고 20세에서 22세가 가장 많았다. 데이트기간은 현재 파트너와 데이트한 지 1년 미만의 경우가 가장 많았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징은 <표 1>에 나타나 있다.

일반적 특징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등의 기본통계를 이용하였고 연구문제 분석을 위하여 일원변량 분산분석과 Duncan's test 등을 사용하였다. 측정도구 작성을 위하여 신뢰도와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3. 측정도구

헌신의 개념을 측정하기 위하여 본 연구자가 문항을 개발하였으며 주성분분석법(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이용한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문항들

<표 1>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인	구분	빈도(%)	평균	범위
성별	남자	186(52.5)		
	여자	162(45.8)		
나이	18-19세	23(6.5)	22.02	18-28
	20-22세	180(50.8)		
	23-25세	128(36.1)		
	26세 이상	16(4.6)		
학년	1학년	10(2.8)	2.56	1-4
	2	173(48.9)		
	3	123(34.7)		
	4	40(11.3)		
데이트기간	1개월 미만	79(22.3)	11.48	0-84
	1-6	92(26.0)		
	7-12	56(15.8)		
	13-18	31(8.8)		
	19-24	21(6.0)		
	25-30	12(3.4)		
	31개월 이상	30(9.1)		
데이트파트너 숫자	0명	70(19.8)	2.17	0-50
	1-2	175(49.4)		
	3-5	60(16.9)		
	6명 이상	21(5.8)		

2. 자료분석

자료분석은 spss/pc+를 이용하였으며 조사대상자의

의 요인점수는 모두 0.5 이상이었으며 한가지 요인만이 추출되었다. 기존의 척도를 이용하려 하였으나 척도를 구성하는 내용이 결혼관계에 해당하는 경우

가 많았으므로 본 연구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데이트관계에 적용되는 문항을 개발하였다. 처음에는 4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었으나 각 문항의 내용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한 문항이 제외되어 3개의 문항으로 헌신을 측정하였다. 이 척도의 신뢰도는 $\alpha=0.85$ 로서 높게 나타났으며 5점 Likert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헌신척도는 현재 사귀고 있는 이성과 그에 대한 대안을 비교하는 것, 현관계의 지속성, 그리고 현재 사귀고 있는 이성에 대한 헌신적 태도 등을 측정하며 이 척도의 문항들은 <표 2>에 예시되어 있다. 혼전 성행동은 '혼전 성행동 척도'(윤경자, 1995)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는데 이 척도는 '키스'에서 '혼전성교'에 이르는 단계적 성행동과 포괄적인 성경험을 측정하며 범위는 0점에서 5점까지이다.

계에 대한 헌신정도가 높을 때 높은 수준의 친밀한 성개방을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그 관계와 파트너에 대해서 심리적 확증 및 신뢰감을 가질 때까지 혼전 성관계에 대해서 유보적이다가 그 이후에는 높은 수준의 성행동의 개방이 일어남을 보여 준다. 그러나 남학생들은 헌신정도에 따라 혼전 성행동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므로 데이트관계나 그 파트너에 대한 헌신에 상관없이 혼전 성행동에 관여함을 보여줌으로써 남녀간 성별에 따른 차이를 나타내었다.

2. 데이트기간에 따른 헌신

데이트기간에 따라 헌신수준에 차이가 있는지를

<표 2> 척도 문항들과 요인점수

척도 문항	요인점수
1. 나는 현재 사귀고 있는 이성보다 더 매력적인 사람이 나타나더라도 현재 파트너와의 관계만을 지속시킬 것이다.	0.74
2. 나는 현재 사귀고 있는 이성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싶다.	0.72
3. 나는 현재 사귀고 있는 이성 외에는 다른 이성과의 친밀한 관계를 발전시키지 않을 것이다.	0.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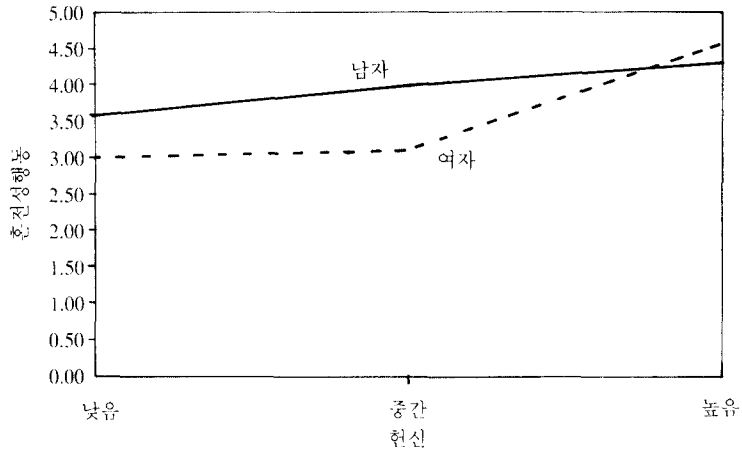
IV. 결과 및 해석

1. 헌신의 수준에 따른 혼전 성행동

<표 3>은 응답자들이 헌신의 수준에 따라 경험한 혼전 성행동의 정도가 성별로 표시되어 있다. 남자 대학생들의 경우에는 헌신이 높아짐에 따라 혼전 성행동을 더 경험하였으나 헌신수준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거의 없었다. 반면에 여자대학생들은 헌신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낮은 헌신과 중간 수준의 헌신에는 혼전 성행동의 경험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헌신수준이 높아졌을 때 혼전 성행동의 수준도 높아졌다. <그림 1>은 이 결과를 성별로 비교하고 있는데 여학생들의 경우에는 헌신도와 혼전 성행동간에 부분적인 곡선관계를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여학생들은 데이트파트너와 그 관

알아본 결과는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데이트 기간이 길어질수록 남자대학생들의 헌신도는 높아졌는데 데이트기간이 가장 짧은 집단은 데이트기간이 긴 다른 두 집단에 비하여 헌신도가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 여학생들의 경우에는 데이트기간이 길수록 헌신수준이 높아졌지만 데이트기간의 집단별 차이는 가장 짧은 집단과 가장 긴 집단에서 나타났다. 데이트기간이 19개월 이상인 여학생들은 6개월 미만의 데이트를 한 경우보다 높은 수준의 헌신을 기록하였다. 남학생들은 데이트 시작 후 비교적 짧은 기간(6개월)이 지나면 헌신수준이 높아지며 여학생들은 긴 데이트기간(19개월 이상)이 흐른 후 헌신수준이 높아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남학생들은 여학생에 비하여 데이트의 초기부터 높은 수준의 헌신을 나타내어 데이트 관계와 파트너에 더 빨리 몰입한다는 것을 암시하며 반대로 여학생들은 상당한 시일이 경과한



〈그림 1〉 헌신수준과 혼전 성행동의 관계

〈표 3〉 헌신수준에 따른 혼전 성행동의 차이

		남자		
헌신의 수준	혼전 성행동	N	F	Duncan's
낮은 헌신	3.56	27	F=1.38	A
중간 헌신	3.97	90		A
높은 헌신	4.31	48		A
		여자		
헌신의 수준	혼전 성행동	N	F	Duncan's
낮은 헌신	3.00	33	F=9.20***	A
중간 헌신	3.09	81		A
높은 헌신	4.58	31		B

*** p < 0.0005

후에야 데이트 파트너의 헌신수준에 도달한다는 것을 제시해 준다. 이러한 결과는 데이트 관계에서 남자와 여자의 몰입정도와 시기가 서로 다르다는 흥미 있는 결과를 보여주며 혼전상담이나 교육프로그램에 이러한 점이 응용될 수 있을 것이다.

3. 데이트 관계의 발달에 따른 헌신

〈표 5〉는 데이트의 발달단계에 따른 헌신수준을 비교하고 있다. 남자대학생들은 부담없이 데이트하는 경우에서 진지한 데이트 관계로 바뀔수록 헌신수

준이 매우 유의하게 높아졌다. 부담없이 데이트하는 집단은 진지하게 데이트를 하거나 약혼 및 결혼을 고려하거나 약혼한 집단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수준의 헌신을 나타내었다.

여학생들의 경우에는 부담없이 데이트하는 집단은 진지하게 데이트를 하는 집단, 그리고 약혼 및 결혼을 고려하거나 약혼한 각각의 집단에 비하여 훨씬 낮은 헌신도를 보여줄 뿐 아니라 이들 세 집단간 차이는 매우 유의하였다. 부담없이 데이트하는 집단은 진지하게 데이트하는 집단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헌신수준을 기록하였고, 약혼 및 결혼 고려 집단은

〈표 4〉 데이트기간과 헌신도의 비교

데이트기간	평균	N	F	Duncan's
남자				
1-6개월	10.27	49	F= 3.39*	A
7-18	11.82	45		B
19-84	11.62	37		B
여자				
1-6개월	9.37	43	F=2.27	A
7-18	10.19	42		AB
19-84	11.07	28		B

* $p < 0.05$

〈표 5〉 데이트관계 발달과 헌신

남자				
데이트발달관계	평균	N	F	Duncan's
부담없이 데이트 함	9.76	76	19.85***	A
진지하게 데이트 함	12.44	27		B
약혼, 결혼고려 및 동거	13.12	33		B
여자				
데이트발달관계	평균	N	F	Duncan's
부담없이 데이트 함	8.28	67	44.65***	A
진지하게 데이트 함	10.82	22		B
약혼, 결혼고려 및 동거	13.59	27		C

*** $p < 0.00005$

진지한 데이트 집단에 비하여 높은 수준의 헌신도를 나타내었으며 부담없는 데이트 집단과 비교하면 헌신도의 차이는 매우 두드러지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관계발달이 진행될수록 헌신도가 높아진다는 선행연구(Kurdek, 1995; Lund, 1985)의 결과와 일치되며 헌신이 관계의 지속성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남학생과 여학생들을 비교해 보면, 데이트 관계의 초기 단계와 중간 단계에서는 남학생들이 여학생들에 비하여 높은 수준의 헌신을 나타내다가 고도로 발달된 데이트관계(약혼 및 결혼고려, 그리고 동거)에서는 남녀 대학생의 차이가 없어짐을 보여준다. 남학생들이 여학생들에 비하여 관계불입

이 빨리 일어남을 알 수 있고 관계가 확고해질 때까지는 여학생들은 관계에 비교적 유보적 태도를 보인다는 것을 시사해준다. 이것은 결혼관계에서 여성들이 남성들에 비해 더 높은 수준의 헌신도를 보인다는 Kimmons(1980)의 연구결과와 비교할 수 있는데 본 연구결과는 데이트 관계에서 헌신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규명한 연구가 매우 부족한 상태에서 의미있는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결과는 헌신이 결혼관계 뿐 아니라 데

이트관계에서도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었고 여학생들의 혼전 성행동의 개방성에도 관련되어 있으며 그 관계는 부분적으로 곡선형을 나타냄을 보여 주었다. 데이트기간과 헌신간 관계는 남녀 대학생 모두에게 긍정적으로 관련되어 있었으며 남학생들과는 달리 여학생들은 일정한 데이트기간이 흐른 후에야 헌신수준을 높였다. 특히 데이트관계의 발달단계와 헌신과의 관계는 두드러진 차이를 나타내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데이트관계를 규명하고 이에 관한 이론적 체계를 쌓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데이트관계와 헌신간 관계에서도 남녀 성별에 따라 다른 차이가 나타났으며 여학생들은 관계가 친밀하게 진행된 후에 관계몰입을 하는 특징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차이는 데이트관계에서 헌신도를 높인다는 것은 친밀한 단계에 대한 투자를 증가시키는 것을 의미하는데 친밀한 관계에 관여한 후 그 관계가 해체되거나 잘못될 경우에 초래되는 손실이 여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회적 규범의 영향에 기인한 것일 수 있다. 따라서 여자대학생들은 관계가 안정된 후에 투자하며 투자를 한 후에는 그 관계에 높은 헌신을 나타냄으로써 관계의 지속성과 헌신간 정적관계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 결과는 헌신이 결혼관계의 지속성 뿐만 아니라 데이트의 친밀한 관계에서도 같은 역할을 함을 자료로서 제시하고 있으며 관계발달에 헌신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데이트기간이 길수록 헌신도가 높아진다는 결과는 결혼전 일정기간 이상의 데이트기간을 가진 후에 결혼하는 것이 짧은 데이트기간을 거친 결혼보다 결혼 초기의 헌신도가 더 높을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므로 최근 증가하는 결혼초 이혼율에 관한 연구에서 탐구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데이트기간과 헌신수준의 차이, 그리고 헌신수준의 차이와 혼전 성행동에서 성별에 따라 각각 다른 결과가 나타난 것도 주목할 만하다. 즉 남성이 높은 수준의 혼전 성행동에 관여하더라도 그것이 그 관계에 대한 헌신도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며 여성의 경우에는 그 관계에 대한 헌신도가 높은 경우에 혼전 성행동에 깊이 간여하므

로 이러한 차이는 상담 및 가족생활교육에서 주의깊게 다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헌신의 개념을 간략하지만 그 구성측면에서 종합적으로 분류하였다. 그러나 헌신의 개념을 체계화하기에는 미흡하며 이를 위해서는 또다른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데이트관계에서 헌신의 역할을 조사한 자료가 매우 부족한 실정에서 그 관계 규명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데이트관계 발달에 관한 이론적 발달과 헌신개념을 친밀한 관계에 관한 연구에 적용시키자는 주장(Stanley and Markman, 1992)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는 대학생이라는 문화적 동질성을 공유한 집단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본 연구자료를 일반화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대상으로 연구범위를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 1) 노은주, 유영주 (1992). 주관적 비교수준에 의한 결혼만족도가 관계몰입에 미치는 영향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0(2), 231-243.
- 2) 윤경자 (1995). 대학생들의 혼전 성허용도에 관련된 변인들. 대한가정학회지, 33(4), 251-263.
- 3) 송정아 (1996). 중년기 부부관계 향상 프로그램 개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1), 113-130.
- 4) Bennett, N. G., Blanc, A. K., & Bloom, D. E. (1988). Commitment and the modern union: Assessing the link between cohabitation and subsequent marital stability.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3, 127-138.
- 5) Cook, K. S. and Emerson, R. M. (1978). Power, equity and commitment in exchange network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3(5), 721-739.
- 6) Eyman, S. K. (1984). Merged identity, ego development, marital commitment and dependency in functional and dysfunctional married couples.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46(3), 958-B.
- 7) Holmes, T. H. and Rahe, R. (1967). The social readjustment rating scale. *Journal of Psychosomatic*

- Research, 11, 213-217.
- 8) Jeong, G. J.(윤경자) (1992). Marital satisfaction and marital stability: A further conceptual reformulation.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53(3), 957A-958A.
 - 9) Johnson, M. P. (1982). The social and cognitive features of the dissolution of commitment to relationships. In S. Duck (Ed.), *Personal Relationships: Dissolving Personal Relationships*. New York: Academic Press.
 - 10) Kelley, H.H.(1983). Love and commitment. In H. H. Kelley et dl., *uose Relationships*. Freeman : San Francisc.
 - 11) Kimmons, N. R. (1980). Marital commitment: An assessment of normative and interpersonal dimension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Florida State University.
 - 12) Kurdek, L. A. (1995). Assessing multiple determinants of relationship commitment in cohabiting lesbian, dating heterosexual, and married heterosexual couples. *Family Relations*, 44, 261-266.
 - 13) Leik, R. and Leik, S. (1977). Transition to interpersonal commitment. Pp. 299-321 in R. Hamblin and J. Kumkel(Eds.). *Behavioral Theory in Sociology*. New Brunswick, Nj.: Transaction.
 - 14) Levinger, G. (1965). Marital cohesiveness and dissolution: An integrative review.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17, 19-28.
 - 15) Levinger, G. (1976). A social psychological perspective on marital dissolution. *Journal of Social Issues*, 32, 21-47.
 - 16) Lewis, R. A. and Spanier, G. B. (1979). Theorizing about the quality and stability of marriage. In W. R. Burr, R. Hill, F. I. Nye, I. L. Reiss(Eds.), *Contemporary Theories about the Family*. New York: Free Press.
 - 17) Lund, M. (1985). The development of investment and commitment scales for predicting continuity of personal relationships.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2, 3-23.
 - 18) Michaels, J. W., Acock, A. C., Edwards, J. N. (1986). Social exchange and equity determinants of relationship commitment.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3, 161-175.
 - 19) Neira, S. B. (1985). The role of sex-role attitudes and commitment in marital adjustment.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Hofstra University.
 - 20) Nock, S. L. (1995). Commitment and dependency in marriag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7(2), 503-514.
 - 21) Rusbult, C. E. (1980). Commitment and satisfaction in romantic associations: A test of the investment model.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16, 172-186.
 - 22) Rusbult, C. E. (1983). A longitudinal test of the investment model: The development(and deterioration) of satisfaction and commitment in heterosexual involvemen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5, 101-117.
 - 23) Rusbult, C. E., Johnson, D. J., & Morrow, G. D. (1986). Predicting satisfaction and commitment in adult romantic involvements: An assessment of the generalizability of the investment model. *Social Psychology Quarterly*, 49(1), 81-89.
 - 24) Stanley, S. M. and Markman, H. J. (1992). Assessing commitment in personal relationship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4(3), 595-608.
 - 25) Thomson, E. and Collella, U. (1992). Cohabitation and marital stability: Quality or commitment?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4, 255-267.
 - 26) Udry, R. (1971). *The Social Context of Marriage*. New York: Lippincott C.